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분석

윤수진* · 김영순** (인하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병사의 군 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여 년간 수행된 박사 논문, 학술논문 총 132편을 대상으로 연구의 기본정보,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흐름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발행연도의 경우 2010~2012년까지 10편 미만으로 발표되다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발행처는 대부분 사회복지학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연구대상은 상당수가 육군에 집중되어 있었다(87%). 특히 일반병사에 관한 연구(91.5%)가 주를 이루었고 부적응병사에 관한 연구(8%)가 약세였다. 이들 대부분은 프로그램 실행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의 표본 크기는 201~500명이 가장 많았다. 셋째, 자료수집방법은 대부분 설문지조사(90%)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자료분석 방법은 양적연구가 상당수(91%)를 차지했다. 넷째, 연구목적은 관계성 및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실시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78.5%). 주제어는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가족 건강성, 대인관계, 자아 탄력성, 순이었고, 내용별 분류는 심리·정서적인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42%). 프로그램별 분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며 운영회기는 12회기, 운영 간격은 주 1회, 운영 시간은 90분과 60분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병사의 군 생활 적응 향상을 위한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민관군 협력 차원의 분야를 제언하고자 한다.

[주제어] 병사, 군 생활 적응, 연구방법, 양적연구, 질적연구

I. 서론

2018년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헬프콜(1303)에 접수된 신고 상담은 61,455건으로, 2014년 17,258건에 비해 급증하는 추세이다(국방부a, 2019). 이 중 병영문화 고충 상담 유형별로는 ‘복무 부적응’에 관한 것이 32.7%로 가장 많았으며 이성 문제(6.9), 보직·진로(5.3), 인권침해(4.1), 정신건강(3.7) 등 순이었다. 조선일보 자료에 의하면, 2019년 6,214명의 병사가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신청해 이 중 98.4%인 6118명이 전역했다. 부적합 사유 가운데 66%는 복무 부적응(4014명)이었다. 신체질환(1329명)이나 정신질환(775명)보다 많았다. 2013년 병사 1,479명이 현부심을 신청해 1,419명이 전역한 것에 비하면 지난 5년 사이에 신청자와 전역자 모두 4배 이상 늘어난

* 제1저자, 인하대학교 인문융합치료학 전공 박사과정, sujinnie493@gmail.com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kimysoon@inha.ac.kr

셈이다(조선일보, 2019 3. 18.).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병사 다섯 명 중 한 명(22.7%) 이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간부의 60%가 부적응병사 관리 문제로 애로사항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b, 2019).

병사는 입대를 통해 엄격한 규율과 통제된 군 조직에 순응해야 하며 신체적으로 힘든 훈련과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군 조직의 요구를 일정 기간 수행해야 한다(김윤나, 이정원, 2012). 하지만 대부분 병사는 자원해서 군에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복무 제도에 따라 군에 입대하기 때문에 군 생활에 자발적으로 적응하기가 어렵다(정미경, 고기숙, 2009). 또한, 최근 군에 입대하는 병사는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여 다양한 사고방식과 개인주의적 생활패턴이 습관화된 특성으로 군의 일사불란한 위계 조직, 엄격한 질서, 절대적인 복종 등이 요구되는 군 조직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국방부c, 2019). 입대 후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불안감이 부적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장 배경의 차이로 또래 및 선 후임병들과 일정한 공간에서 생활하므로 욕구 불만, 정서불안, 심리 갈등, 육체 피로, 스트레스 등을 경험할 수 있다(장경숙, 2008).

군대에서의 적응이란 한 개인이 군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군 조직이 요구하는 목적에 부응함과 동시에,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적응을 잘하는 병사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이 맡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한다(정봉기, 2016). 한편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의 부적응 양상은 주로 의사소통 및 직무수행의 어려움에서 우울이나 불안을 포함하는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나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 등으로 이어진다(박은경, 2014). 부적응의 결과는 병사 개인뿐만 아니라 동료 병사들과 부대에 부정적인 영향과 군 조직의 사기 저하, 그리고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군에 대한 신뢰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정봉기, 2016).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는 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서,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국방성 중심으로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처음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당시 Strotffer(1949)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이 개인의 배경적 특성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을 연구한 것이 효시라고 할 수 있다(장용언, 2017). 군 생활 적응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성장과 함께 군의 사기와 군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대식, 2013).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선임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이등병들의 집단 자살 시도 사건, 2014년 임병장 GOP 총기 난사, 윤일병 집단폭행과 사망 사건, 그 밖의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탈영 등 각종 사건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장용언, 2017).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병영혁신 어떻게”라는 주제로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과 관련된 TV 토론회가 열렸다(MBC, 2011.7.4.). TV 방송을 계기로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의 문제를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었으며 위계적 계급문화를 탈피하고자 하는 군조직의 쇄신과 병사들의 병사의 군 생활 조건이나 부적응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져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관련하여 다양한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다(최세일, 2013). 그런데도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정원철, 박영주(2011)와 임동조(2017)의 연구 외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병사의 군 적응과 관련 문제에 대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여 년간 수행된 연구의 기본정보,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흐름과 동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II. 이론적 배경

1. 병사와 군 생활 적응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개념은 ‘병사’와 ‘군 생활 적응’이다. 우선 병사의 개념을 정의하면, 병사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현역병으로 군부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장교와 부사관을 제외한 이등병에서 병장까지의 군인을 말한다(장용언, 2017). 2019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군인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를 모두 포함하여 대략 62만여 명이다. 육군 군인 수의 비중은 78.2%로 가장 높고, 공군 10.5%, 해군 6.6%, 해병대 4.7% 순이다. 이 중 병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70% 정도이며 한 해 입영 인원은 대략 22만여 명에 달한다(국방통계연보, 2019).

두 번째 개념은 군 생활 적응이다. 군 생활 적응에 관한 개념은 크게 심신건강 영역, 대인관계 영역, 조직문화 영역, 환경변화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심신건강 영역에서의 주요 연구는 최혜란(2009), 박상희(2012), 정봉기(2016)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최혜란(2009)은 군부대의 특수한 환경 안에서 심리·사회적 측면 등에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였고, 박상희(2012) 군 조직의 규범과 군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 심리적 안정을 느끼면서 군 조직에서의 개인의 기대와 욕구 등이 충족된 상태라 하였다. 정봉기(2016)는 군 조직이 요구하는 목적에 부응함과 동시에,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둘째,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주요 연구는 김정은(2013), 최경순(2014), 김옥란(2014), 강명숙(2015) 등이 있다. 김정은(2013)은 내무생활 등에서 겪는 부대원들과의 관계 적응으로 보았고, 최경순(2014)은 상·하급자와의 관계가 원활하여 군 환경에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라 하였다. 김옥란(2014)은 관계적인 측면(친구, 동료, 선임 관계)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 하였고, 강명숙(2015)은 상·하급자 및 동료 간 의사소통 시 적절하고 조화롭게 반응하고 대처하여 대인관계가 원활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셋째, 조직문화 영역에서의 주요 연구는 구승신(2004), 김윤나와 이정원(2012), 성현주(2014) 등이 있다. 구승신(2004)은 병사들의 군 조직문화의 일부분으로 흡수되는 과정으로 병사들 스스로 군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자신을 귀속시키는 역할 개인화로 보았고, 김윤나와 이정원(2012)은 부여된 군대 임무에 대하여 사명감과 의무감, 희생정신을 가지며 직책과 직무에 만족하고 군 조직의 규범과 질서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라고 보았다. 성현주(2014)는 조직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활기찬 병영생활을 영위하며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

이라 하였고, 최혜란(2011)은 부대정비, 개인정비, 교육훈련 등을 일상생활처럼 여기는 편안한 상태라 정의하였다.

넷째, 환경변화 영역에서의 주요 연구는 김진숙(2006), 김윤미(2012), 김중배(2016) 등이 있다. 김진숙(2006)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지배력과 적합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이라 보았다. 김윤미(2012)는 변화하는 환경에 순응함으로써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는 것으로 군 조직의 규범과 질서를 자발적으로 시인하는 태도라고 하였고, 김중배(2016)는 병사들이 군의 조직과 문화·가치 등을 주제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환경을 우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기의 내·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환경과의 교섭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군 생활 적응은 병사가 기존 질서와 가치가 다른 군이라는 조직에 순응함으로써 심신이 건강하게 부대원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병사들이 조직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활기찬 병영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포괄적인 범위로 보았다.

2.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는 군 생활 적응 연구 동향 분석을 한 논문과 학교 부적응, 상담·치료 관련 연구 동향분석을 한 논문 11개에서 사용된 분석 준거를 검토하였다. 모든 논문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분석 준거는 기본정보,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의 4가지이다.

본 연구는 이 4가지 분석 준거에 기초하고, 군 생활 적응 관련 연구 동향 논문인 임동조(2017)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임동조(2017)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진은실, 임영석(2015)에서 개인적 특성인 일반병사와 부적응병사로 나누었으며, 프로그램 동향을 추가하였다. 또한, 김진선, 김영순(2020)에서 표본 크기와 주제어를 추가하였고, 조예지(2014)에서 연구목적을 추가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탐색적 연구의 동향분석 준거

연구자 (연도)	연구 분야	분석대상 (기간)	분석 준거
임동조 (2017)	병사의 군 적응 및 부적응	국내 학술논문 69편 (2006~2016)	연구방법(연구분포, 연도별 추이, 연구대상, 자료수집, 자료분석), 연구내용(주제)
진은실, 임영석 (2015)	병사의 군 적응 프로그램	국내 학위논문, 학술논문 57편 (2001~2015)	연구유형,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설계, 프로그램 실시 방법, 효과성 요인, 프로그램 개발 여부
정원철, 박영주 (2011)	병사의 군 부적응 및 적응력 향상	국내 학술논문 44편, 학위논문 77편 (2000~2009)	연구방법(연구분포, 연도별 추이, 대상, 자료수집, 자료분석), 연구내용 (주제)
조예지 (2014)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국내 학위논문 113편 (2007~2013)	기초사항(연구자의 전공 분야, 출판연도), 연구대상(연령, 소속 기관), 연구방법(자료조사, 자료분석), 연구내용(연구목적, 요 인, 대책 방안)

연구자 (연도)	연구 분야	분석대상 (기간)	분석 준거
박경애, 박지은 (2017)	상담심리학	국내 학술논문 219편 (2012~2016)	기초사항(출판연도), 연구대상(대상분류, 인원수), 연구방법, 연구내용(주제)
김희은, 이미현, 김인규 (2014)	대학생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국내 학위논문, 학술논문 97편 (2005~2014)	기초사항(연도별 분포), 연구내용(이론적 접근, 주제, 목표), 프로그램 평가(연구방법, 측정 도구, 참여대상수, 회기, 운영 시간)
오영섭, 김영순, 왕금미 (2018)	이야기치료의 국제적 연구	해외 학위논문 83건 (1995~2017)	기본정보(발행처, 발행연도, 심리학의 연구영역), 연구대상(발달단계, 성별, 표본 크기), 연구방법(연구방법론, 주요 변수), 프로그램(융합 여부, 회기 횟수)
오은경, 최미, 최한나 (2016)	다문화 상담	국내 학위논문, 학술논문 380편 (1993~2016)	기본사항(논문출처, 연구년도),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김진선, 김영순 (2020)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 상담	국내 학술논문 58편 (2010~2020)	기본정보(발행처, 발행연도), 연구대상(유형별, 학교급별, 지지대상, 표본 크기), 연구방법, 연구주제(진로 관련 변인, 진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종류, 회기, 핵심어)
김수민, 김영순 (2019)	다문화 내담자 미술치료	국내 학술논문 53편 (2006~2018)	기본정보(발행연도), 연구대상(내담자별, 발달단계별, 연령별, 연구대상 수), 연구방법(방법론, 주요 변수), 프로그램(융합 여부, 회기, 핵심어)
금선미, 심혜진 (2019)	교류분석 상담	국내 학위논문 90편, 학술논문 8편 (1982~2018)	기초사항(제목, 발행처, 출판연도),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논문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 논문의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사의 군 적응을 연구한 논문은 학위논문과 학술지를 통하여 상당수가 발표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학술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박사 논문과 비교적 논문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술지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둘째, 선정된 논문을 수집하기 위하여 학술정보서비스(RISS), 학술정보논문검색서비스(KISS), 누리미디어(DBpid), 이아티클(E-article)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검색 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고, 검색어는 ‘군 생활 적응, 부대 적응, 병영생활 적응’을 입력하여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검색조건으로 2020년 8월에 검색한 결과 총 140편이 검색되었으며 이 가운데서 중복된 논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박사논문 23편, 학술논문 109편으로 총 132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동향분석 준거

본 연구에서는 <표 1>에 제시된 연구 동향 분석 12편의 연구에서 분석 준거를 검토하여 기본정보,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 등의 4가지 상위범주를 1차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상위범주를 기준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32편의 논문으로부터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각각의 하위범주를 2차적으로 도출하였다. 연구자는 2차 범주화를 통해서 정리된 하위범주들을 수퍼바이저의 지도를 통해 보완하여 분석을 위한 최종적인 범주 체계를 다음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군 생활 적응의 연구 동향 분석 준거

	범주	내용
기본정보	발행연도	2010~2020년의 연도별 추이
	발행처	· 박사논문 발행 대학 · 학술논문 발행 학회지
연구대상	연구대상	· 소속 군 ;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혼합 · 개인 특성 ; 일반병사, 부적응병사, 전입신병, 다문화, 특기병
	표본 크기	연구참여자의 수
연구방법	자료분석방법	질문지, 면담, 혼합, 문헌
	연구방법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
연구내용	연구목적	관련성· 영향력 측정, 요인분석, 대책 및 방안
	내용별 분류	심리·정서, 신념·성향,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문화, 병영 생활
	주제어	연구논문에 언급된 주제어 분석
	프로그램 운영	회기의 횟수, 간격, 시간

<표 2>와 같이 연구 동향 분석 준거를 4개의 상위범주와 10개의 하위범주로 구성하였으며 이 범주를 토대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기본정보는 논문의 발표 연도별 분포와 발행처를 파악하여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은 우선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로 구분하였고, 다음으로 일반병사와 부적응병사, 다문화 병사, 특기병, 전입 신병, 동성애 병사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참여자인 병사들의 특징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수를 알아봄으로써 신뢰도를 측정해볼 것이다. 셋째, 연구방법 분석은 자료수집 방법과 자료 분석 방법으로 나누었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질문지, 면담, 혼합, 문헌으로 구분하였고, 자료 분석 방법으로 양적, 질적, 혼합분석, 문헌연구로 구분하여 군 생활 적응 관련 논문 간 연구방법론의 주요 양상을 탐색할 것이다. 넷째, 연구내용 분석은 연구목적과 주제어, 내용별 분류, 프로그램을 통한 군 생활 적응 연구 경향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목적은 관련성· 영향력 측정, 요인 분석, 특성 분석, 대책 및 방안으로 나누었고, 내용별 분류는 심리/정서, 신념/성향, 사회/문화, 대인관계, 가정생활, 병영생활로 나누었다. 프로그램 연구의 경우 프로그램의 유형, 회기의 횟수, 간격, 시간을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본정보 영역

우선적으로, 기본정보로서 발행연도와 발행처를 파악하였다.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의 군 생활 적응 관련 박사 논문과 학술논문을 연도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연도별 분포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박사논문	2	1	3	1	2	3	2	2	3	3	1	23
학술논문	3	6	6	10	14	15	20	15	10	6	4	109
계	5	7	9	11	16	18	22	17	13	9	5	132

군 생활 적응 관련 논문의 연도별 발행분포를 살펴보면, 2010~2012년까지 10편 미만으로 발표되다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가 증가한 것은, 2011년 군 내 사건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드러나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이후 군에서의 병영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과 사고 예방 노력을 추진한 결과 군 내의 큰 사건·사고가 감소하였다. 그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어 연구가 감소하였으나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의 군 생활 적응 관련 박사 논문을 발행처, 즉 발행학교 및 학과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박사 논문 학교/학과 분포

학교	학과	빈도	백분율(%)	합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5	21	23
중앙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1	9	
	행정학과	1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9	
	경찰행정학과	1		
상지대학교	교육학과	1	9	
	상담심리학과	1		
한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4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4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4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4	
순복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4	

학교	학과	빈도	백분율(%)	합계
전남대학교	국제학과	1	4	
백석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학과	1	4	
전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4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	4	
선문대학교	교육상담학과	1	4	
총신대학교	목회신학과	1	4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4	
경북대학교	체육학과	1	4	

군 생활 적응 관련 연구의 발행처를 살펴보면, 박사 논문의 대학별 분포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가 가장 많았으며(5편), 그다음으로 중앙대(2편), 한세대(2편), 상지대(2편)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별로는 사회복지학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9편). 또한, 군 생활 적응 관련 학술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학술논문 학회지 분포

연구영역	구분	빈도	분야합	백분율(%)	합계
국방 행정	한국군사학회	1	3	3	109
	한국국방연구원	1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			
간호 의학	국군간호사관학교 군진간호연구소	2	5	4.5	
	한국간호과학회	1			
	경북간호과학회	1			
	대한스트레스학회(가정의학과)	1			
심리 상담	한국상담학회	7	23	21	
	한국심리학회	5			
	대한군상담학회	5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	1			
	한국재활심리학회	1			
	한국가족치료학회	1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1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1				
사회 복지	한국군사회복지학회	19	21	19	
	한국사회복지학회	1			
	한국정신건강 사회복지학회	1			
	한국경찰복지학회	1			
청소년	한국청소년학회	16	17	16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1			
정책	한국콘텐츠학회	5	7	6	

연구영역	구분	빈도	분야합	백분율(%)	합계
언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			10
	아시아문화학술원	3			
연구소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			
	서강대학교 학교생활상담연구소	1	11		
	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1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			
	중앙대학교한국인적자원개발전략	1			
체육	한국스포츠헌회	2			3
	한국체육학회	1	3		
치료	한국미술치료학회	1			3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1	3		
	한국교육치료학회	1			
식물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	2			5.5
	한국원예학회	4	6		
기타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3			9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	1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			
	한국인간발달학회	1			
	한국산학기술학회	1	10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1			
	위기관리논집	1			
	한국 효학회	1			

군 생활 적응 관련 연구의 발행처를 살펴보면, 학술논문의 학회지 분포는 한국군사회복지학회에서 가장 많이 발표했으며(19편), 한국청소년학회(16), 한국상담학회(7편), 대한군상담학회(5편), 한국콘텐츠학회(5편), 한국심리학회(4편) 등의 순으로 발표했다. 사회복지학과와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상담학회에 논문들이 많이 게재된 것은 ‘병영생활상담관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군 상담 및 군 복무 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2005년 8명으로 시작한 ‘병영생활상담관제도’의 상담관은 2013년 199명에서 2017년 383명으로 확대되어 연대급까지 배치되었다. 2020년 549명으로 활동 중이며 연말까지 660명으로 확대, 2022년에는 대대급 1명 수준으로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함에 따라(국방일보, 2020)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관련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기대되는 주제라 볼 수 있다.

2. 연구대상 영역

1) 연구대상의 소속 군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군 생활 적응 관련 박사 논문과 학술논문을 연구참여자의 소속 군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연구대상의 소속 군

구분	단일군				복합군					전군	합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육군, 해군, 공군	육군, 해군	육군, 공군	육군, 해병	해군, 해병		
빈도수	99	4	10	2	4	1	3	3	1	5	132
백분율 (%)	75	3	8	1	3	1	2	2	1	4	100

연구대상을 소속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7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75%), 그다음으로 공군(8%), 해군(4%), 해병대(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5편(4%), 육군, 해군, 공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4편(3%), 육군과 공군 연구는 3편(2%), 육군과 해병대 연구는 3편(2%), 육군과 해군 연구는 1편(1%), 해군과 해병대 연구는 1편(1%)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연구가 육군을 중심으로(87%)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2017년 처음 진행되었고 육군과 해군 연구는 2018년, 해군과 해병대 연구는 2017년에 나타나, 해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군에 연구가 집중된 것은, 육군이 전체 병사의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징집되는 육군과 달리 해군, 공군 해병대는 지원해서 군 복무를 하고 기술병 위주의 병영 생활로 인해 육군과 비교하면 사건·사고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연구대상의 개인별 특성

연구참여자를 개인별 특성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병사와 부적응병사 외에도 연구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거론된 전입 신병, 특기병, 다문화 병사, 동성애 병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7> 개인별 특성

구분	일반 병사	부적응 병사	일반/부적응	기타				합계
				전입 신병	특기 병사	다문화병사	동성애병사	
빈도수	112	6	5	4	3	3	1	132
백분율 (%)	84	4.5	4	3	2	2	0.5	100

연구참여자의 개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병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84%), 부적응병사(4.5%), 일반병사와 부적응병사(4.%), 전입 신병(3%), 특기병(2%), 이주 배경을 지닌 다문화 병사(2%) 동성애 병사(0.5%) 순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연구가 일반병사를 중심으로(91.5%) 진행되고 있었고 부적응병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8.5%) 대부분 심리 프로그램이나 상담프로그램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2015년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특기병을 대상으로, 2018년 커플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병사¹⁾, 2018년과 2019년에는 다문화 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대상의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대상의 표본 크기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군 생활 적응 관련 박사 논문과 학술논문을 연구참여자의 표본 크기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연구대상의 표본 크기

구분	개인	2~10	11~50	51~100	101~200	201~500	501~1,000	1,000 이상	합계
빈도수	4	9	11	4	13	70	17	4	132
백분율 (%)	3	7	8	3	10	53	13	3	100

연구대상의 표본 크기를 살펴보면, 201~500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53%), 그다음으로 501~1,000명(13%), 101~200명(10%), 11~50명(8%), 2~10명(7%), 개인이나 1,000명 이상(3%) 순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연구가 201~500명의 표본 크기를 보인 이유는, 군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형태가 주를 이루기 때문으로 보인다. 2~1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질적연구나 집단프로그램 관련 연구로서 연구참여자 한 집단의 인원이며, 11~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집단프로그램 실행 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으로 나눈 상황에 해당한다. 군에서 개인이나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적은 이유는, 개인이나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군 교육 시간에 차질이 생기고, 연구대상인 개인이나 집단에 부정적 시선을 줄 수 있다는 군의 인식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16년 1건을 시작으로 2018년 2건, 2019년 1건으로 늘어나 조금씩 변화됨을 발견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영역

1) 자료수집 방법

- 1) 군 생활로 인해 커플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체크한 병사들과 현재 여자친구가 없더라도 군 생활 과정에서 파트너와 헤어진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해 커플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병사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군 생활 적응 관련 박사 논문과 학술논문의 자료수집방법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9>과 같다

<표 9> 자료수집 방법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설문지	5	7	9	11	14	16	21	14	13	7	4	121	91.5
면담						1	1			1	1	4	3
문헌					1			1		1		3	2.5
혼합					1	1		2				4	3
계	5	7	9	11	16	18	22	17	13	9	5	132	100

군 생활 적응 관련 논문의 자료수집 방법을 살펴보면, 설문지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91.5%), 면담(3%), 혼합(3%), 문헌(2.5%) 순이었다. 전체연구의 대다수가 설문지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층 면담은 질적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으로 이용되는 4편으로, 다문화 병사의 복무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2019), 이중문화 장병²⁾의 군 생활 적응과 관련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도출 연구(2018), 육군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2016), 동성애자들의 병영 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2015)가 있다. 혼합수집을 한 연구는 4편으로, 집단미술치료가 입대초기병사의 군 생활 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2017)에서는 설문지와 그림 검사, 정신건강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2017), 군 입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2015), 군 입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 경험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2014)에서는 설문지와 면담을 사용하였다. 문헌을 사용한 연구는 3편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군 생활 현황분석과 신세대병사의 군 생활 증진 방안(2019), 군 장병의 군 생활 적응을 위한 군 사회복지 활성화 방안(2017), 군인 청소년의 군 생활 적응과 적응 유연성에 관한 연구(2014)가 있다. 이처럼 전체 연구가 설문지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는 보안과 외부통제를 중시하는 군의 특수성으로 군대조직에 속한 병사를 대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따른 제약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 자료분석 방법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군 생활 적응 관련 박사 논문과 학술논문의 자료분석방법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2) 국제결혼 과정에서 태어나 군에 입대한 자녀와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 근로자로 형성된 가정에서 태어나 군에 입대한 자녀, 그리고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입대한 장병

〈표 10〉 자료분석 방법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양적연구	5	7	9	11	14	17	21	13	12	7	5	121	91
질적연구						1	1	1	1	1		5	4
혼합연구					1			2				5	3
문헌연구					1			1		1		4	2
계	5	7	9	11	16	18	22	17	13	9	5	132	100

군 적응 관련 논문의 자료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양적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했으며(91%), 질적연구(4%), 혼합연구(3%), 문헌연구(2%) 순이었다. 질적연구는 5편으로, 질적연구 방법으로는 다문화 병사의 복무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2019)에서는 근거이론, 이중문화 장병의 군 생활 적응과 관련된 보호 요인과 위험요인 도출 연구(2018년)에서는 CQR-M 분석, 군 적응 상담을 위한 교육과정 내용 모형 설계 선행연구분석(2017)에서는 델파이조사, 육군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2016)와 동성애자들의 병영 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2015)에서는 현상학이론을 사용하였다. 질적연구는 2015년 이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한 혼합연구는 4편으로, 집단미술치료가 입대초기병사의 군 생활 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2017), 정신건강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2017), 군 입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2015), 군 입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 경험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2014)으로 나타난다. 문헌연구는 3편으로, 위의 자료조사 방법에서의 문헌을 사용한 연구가 같다. 군 특성상 병사를 대상으로 연구 활동이 제한된 점을 감안할 때 질적인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질적연구가 다소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연구내용 영역

1) 연구목적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군 생활 적응 관련 박사 논문과 학술논문의 연구목적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목적 분류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연관성측정	5	6	8	11	15	17	20	16	12	6	5	121	92
요인분석			1						1	1		3	2
특성분석		1			1	1	2			1		6	4.5
대책 및 방안								1		1		2	1.5
계	5	7	9	11	16	18	22	17	13	9	5	132	100

군 적응 관련 논문의 주제별 동향을 살펴보면, 관련성 및 연관성을 알아보려고 실시한 연구가 124건(92%)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다음으로 특성연구(4.5%), 요인분석(2%), 대책 및 방안(1.5%) 순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연구는 3편으로,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2019), 군대 내 이중문화장병의 군 생활 적응과 관련된 보호 요인과 위험요인 도출(2018),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2012)가 있다. 특성 연구는 3편으로, 현역병의 우울 및 군 생활 적응 수준에 따른 PPAT 그림검사 반응 특성 연구(2016), 군 병사의 자살 관련 행동에 따른 적응특성(2014), 복무 적응과 관련되는 입대 전 생활사와 성격 특성(2011)이 있다. 대책 및 방안 연구는 2편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군 생활 현황분석과 신세대병사의 군 생활 적응 증진방안(2019), 군 장병의 군 생활 적응을 위한 군 사회복지 활성화 방안(2017)이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군 관련 연구가 연관성과 관계성을 측정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데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제어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군 생활 적응 관련 박사 논문과 학술논문의 주제어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12>과 같다. 주제어는 학위논문에 직접 기술하거나 초록 데이터베이스에 제시하는 논문의 주제어를 분석하였다. ‘군 생활 적응’과 ‘병사’는 모든 연구에 포함되므로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표 12> 주제어 분류

주제어	빈도수	백분율(%)	주제어	빈도수	백분율(%)
군 생활 적응	132	-	정신건강	5	2.5
병사	132	-	마음 챙김	5	2.5
스트레스	31	17	매개효과	5	2.5
사회적 지지	23	13	자아효능감	5	2.5
자아존중감	16	9	정서 지능	5	2.5
대인관계	13	7	불안·우울	4	2
가족 건강성	12	6	의사소통	4	2
자아 탄력성	10	5	부모 양육 태도	4	2
자살	6	3	관심병사	4	2
스트레스 대처	6	3	학교폭력	4	2
적응	6	3	다문화	4	2
군 사회복지	6	3	집단효능감	4	2
회복 탄력성	5	2.5	교류 분석	4	2
			합계	191	100

군 적응 관련 논문의 주제어 동향을 살펴보면, 132개의 논문에서 제시된 주제어는 총 125개이며 125개의 키워드 중에서 4번 이상 반복된 단어는 24개이다. 이 중 10번 이상 반복된 단어는 군 생활 적응, 병사,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가족 건강성, 대인관계, 자아 탄력성 순이다. 주제어 분석을 통해 볼 때 병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원인이나 해결방법으로써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가족 건강성, 자아 탄력성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의 주요 내용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군 생활 적응 관련 박사 논문과 학술논문의 연구내용별 분류는 다음 <표 13>과 같다. 연구내용 분석을 통해서 크게 나누어보면, 심리/정서, 신념/성향, 대인관계, 가정 사회, 병영 생활로 나눌 수 있다. 내용이 중복된 경우 구분에 포함시켰다.

<표 13> 연구내용 분류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심리/정서	1	4	8	6	14	13	10	6	9	4	3	79 41.5
신념/성향		2	1	1	4	2	2	4	2	1		19 10
대인관계	1	3	2	2	6	3	2	1	1	1	2	24 13
가정생활	1		1	2	3	1	3	3	1	3	2	20 10.5
사회/문화		1	4	1	3	5	7	2	4	2		29 15
병영생활					1	3	3	4			1	12 6
기타		2	1		1		1	3			1	8 4
합계	3	12	17	12	32	27	28	23	17	11	9	191 100

군 적응 관련 논문의 내용별 동향을 살펴보면, 심리/정서영역이(41.5%)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문화영역(15%), 가정생활영역(10.5%), 대인관계영역(13%), 신념/성향영역(10%), 병영 생활영역(6%), 기타(4%)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정서 영역은 스트레스 관련 연구(31편)가 가장 많았으며 자아존중감(16편), 자아 탄력성(10편), 자살 생각(6편), 정신건강(5편), 순이었다. 사회/문화 영역은 사회적 지지 관련 연구(23편)가 가장 많았으며 다문화(4편), 학교폭력(4편) 순이었다. 가정생활 영역은 가족 건강성 관련 연구(12편)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 양육 태도(4편), 부모 애착(3편) 순이었다. 대인관계 영역은 대인관계 관련 연구(13편)가 가장 많았으며 조망 수용(4편), 의사소통(4편) 순이었다. 신념/성향 영역은 스트레스 대처 관련 연구(6편)가 가장 많았으며 진로 관련(3편), 사회적 문제해결(3편) 순이었다. 병영 생활 영역은 집단효능감 관련 연구(4편)가 가장 많았으며 집단응집성(3편), 조직몰입·헌신(3편), 동기·상사·간부 지지(3편) 순이었다. 기타영역에서는 스포츠 참여(4편), 인터넷중독(3편) 순이었다. 연구내용면에서는 심리/정서영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병사가 심리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 또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4) 프로그램 동향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군 생활 적응 관련 박사 논문과 학술논문의 프로그램별 분류는 다음 <표 14>과 같다.

〈표 14〉 프로그램 분류

연구논문	유형	연도	대상	회기	간격	시간	인원
교류분석이론을 활용한 집단상담이 부적응병사의 군 생활 적응향상에 미치는 효과	집단 상담	2018	부적응 병사	8	주 1회	120 분	10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부적응병사의 자아존중감, 군 생활 스트레스, 군 생활 적응 향상력에 미치는 효과		2018	부적응 병사	10	주 1회	90 분	10
해병대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위한 교류분석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2014	해병대 병사	12	3일	120 분	15
한국적의사소통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전입신병의 인간관계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2014	전입 신병	6	3일	60 분	17
자이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육군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2010	일반 병사	12	주 2회	90 분	20
군 부적응병사의 군 적응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원예 치료	2015	부적응 병사	12	격주	100 분	24
군 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자기표현 기반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규명		2015	일반 병사	10	주 1회	60 분	6
병사의 군 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자기표현 모델을 기초로 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규명		2014	일반 병사	10	주 1회	60 분	30
집단미술치료가 군 입대 초기병사의 군 생활 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미술 치료	2017	초기 병사	10	주 1회	120 분	15
군 생활 적응 증진을 위한 멘탈 휘트니스 긍정심리 프로그램의 효과	긍정 심리	2017	일반 병사	6	주 1회	90 분	35
APL적응전략 프로그램이 군 복무 부적응자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환경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APL 적응	2016	부적응 병사	12	3일	90분	12
불교명상을 근간으로 한 군 생활 적응 프로그램이 군 스트레스, 군 생활 적응, 불안, 우울, 마음챙김에 미치는 효과	불교 명상	2016	일반 병사	8	주 1회	60 분	24
집단음악치료가 관심병사의 군 생활 스트레스와 적응에 미치는 효과	음악 치료	2012	부적응 병사	12	3일	60 분	7

본 연구는 향후 군 생활 적응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의 일환이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들에서 프로그램을 다룬 연구는 연구 동향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구는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 변수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 전과 후의 변화를 측정하고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8월까지 군 생활 적응 관련 박사 논문과 학술논문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는 총 13편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5편) 가장 많았으며 원예치료 프로그램(3편), 집단음악치료, 집단미술치료,

불교 명상, APL적응전략, 멘탈 휘트니스 긍정심리 프로그램이 1편씩 나타났다. 운영회기는 12회기(5편), 10회기(4편), 8회기(2편), 6회기(2편)로 진행되었다. 운영 간격은 주 1회(7편), 주 2회(1편), 격주(1편)였으며 4편의 논문은 단기집중 프로그램으로써 2박 3일 동안 부적응병사를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다. 운영 시간은 90분(4편), 60분(4편), 120분(2편), 120분(2편), 100분(1편)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참여인원수는 10명 이하(5편), 10~20명(4편), 20명~40명(4편)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들에서 수행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군 생활 적응 연구가 주로 일반병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프로그램 연구는 일반병사와 부적응병사가 비슷한 비율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연구방법에서는 양적연구가 다수를 이루어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에 그친다. 병사의 군 적응에 있어 어려움은 무엇이고 군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어떤 과정으로 적응하고 있는지에 관한 심층적인 질적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여 년간 국내에 발표된 군 생활 적응 관련 박사 논문 23편, 학술지 논문 109편, 총 132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군 생활 적응 관련 연구의 발행연도와 발행처, 연구대상, 표본 크기, 자료수집 방법, 자료분석 방법, 연구목적, 연구내용별 분류, 주제어, 프로그램을 분류·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여 년간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관련 발행연도를 살펴보면, 2010~2012년까지 10편 미만으로 발표되다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2011년 군 내 사건·사고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자의 저변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군에서의 병영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과 사고 예방 노력을 추진한 결과 군 내의 큰 사건·사고가 감소하였다. 이에 병행하여 사회적 관심이 줄어 연구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은 매년 늘어남에 따라 군의 주도하에 관련 학교 및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심층적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발행처를 살펴보면, 사회복지학과와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상담학회에 논문들이 많이 게재되었다. 이는 ‘병영생활상담관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군 상담 및 군 복무 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군에서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 운영으로 군 내 큰 사고를 많이 줄였으나 이 제도 또한 군의 통제하에 있기에 병사가 편안하게 상담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민관군이 협력하여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도울 방안을 구안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우선 소속군별로 볼 때 연구의 87%가 육군에 집중되어 있다. 육군에 연구가 집중된 것은, 육군이 전체 병사의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징집되는 육군과 달리 해군, 공군 해병대는 지원해서 군 복무를 하고 기술병 위주의 병영생활로 인해 육군과 비교하면 사건·사고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개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92%의 연구가 일반병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부적응병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8%로 대부분 심리프로그램이나 상담프로그램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반면, 일반병사 중 2015년 이후 동성애자, 특기병, 다문화 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병사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한부모 가정, 빈곤 가정, 저학력, 정신과 치료 여부, 성격장애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병사의 군 적응 수준과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의 군인복지실태조사(2012)에 의하면 군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에 제곱이 낮은 이병일수록 '정서장애 예방 프로그램'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에 전입 신병의 군 생활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가 요청된다.

넷째, 연구대상의 표본 크기, 자료수집 방법과 자료분석 방법, 연구목적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연구가 201~500명의 표본 크기를 보였고 특정 시점에서 많은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된 설문지를 토대로 한 양적연구로 진행된다. 또한 군 생활과 연관된 변인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에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안과 통제를 중시하는 군의 특성상 병사를 대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따른 제약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효과성을 입증하는 양적연구로는 군 생활 적응과 관련된 전반적인 맥락 및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병사가 입대 후 군 생활 적응에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고 어떠한 과정으로 다루어졌으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므로 병사의 적응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질적연구와 추적관찰로 적응 보호 요인을 도출해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제어와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주제어에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가족 건강성, 대인관계, 자아 탄력성 순으로 나타났고, 내용별로 살펴보면, 심리/정서 영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사가 스트레스 등 심리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원인이나 해결 방법으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가족 건강성, 대인관계, 자아 탄력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군 생활 적응 연구가 주로 일반병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프로그램 연구는 일반병사와 부적응병사가 비슷한 비율로 연구되었다.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상담, 미술, 원예, 음악, 불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방법에서도 양적연구가 다수를 이루어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에 그친다. 또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프로그램의 수가 13편에 불과해 이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관련 연구 동향 결과를 토대로 학문적·임상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군사건·사고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징병제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계적 군사 강국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징병제를 시행함에도 부대 내 사건·사고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군(IDF)과 군 복무를 마친 현직인 등에 따르면 한국과 이스라엘 병영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병영 내 '자율성 보장'과 병사 간 위계질서가 엄격하지 않은 '내무반 분위기' 등을 꼽는다. 또한 병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은 부모나 외부에 즉각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도움이 필요한 병사의 문제를 군과

부모, 사회가 같이 해결하려 한다. 이와 같은 해외 병영생활의 성공사례를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군의 지휘관 및 참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변화가 요구된다. 병사에게 입대는 그의 삶에 일대 전환을 가져다줄 인생의 중요한 과정이다. 군은 체력증진과 정신력 강화를 통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신이 건강한 인격체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군 생활이 건강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도움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병사들이 군 생활 적응을 위한 연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7년 이후의 군 생활 적응 동향을 분석했다는 점과 임동조(2017)의 연구에서 분석하지 않았던 연구대상의 개인별 특징, 연구대상의 표본 크기, 연구목적, 주제어 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석사 논문을 제외한 박사 논문과 학술논문 위주로 하였기에 국한된 연구 출처에 한계점을 지닌다. 추후 석사 논문으로 연구 동향의 분석범위를 확대하면 좀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숙(2015). 군 입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건강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 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승신(2004). 신세대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승신(2005). 신세대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국방연구원, 2(2), 200-202.
- 구휘곤(2010). 군 병사의 스포츠 참여와 집단응집성, 군 생활 적응성, 효과성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금선미, 심혜진(2019). 교류 분석 상담에 관한 연구의 동향.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9(1), 175.
- 김옥란(2014). 군 병사의 자기 복잡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 : 대인 존재감과 조망 수용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옥란, 김원일(2014). 군 병사의 군 생활 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상담학회, 15(4), 1628-1631.
- 김성중(2011). 병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종교적 대처가 군 적응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목회 상담적 접근. 총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민, 김영순(2019).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의 국내연구 동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9(16), 475-478.
- 김유나, 이정원(2012). 징병 및 훈련소 단계에서의 군 복무 부적응병사의 식별과 관리상황. 한국군사회복지학회, 5(2), 84-86.
- 김성중, 김원일(2017). 공군 병사의 의사소통 능력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학회, 24(10), 388-389.
- 김종효, 김경순, 변상혜(2018). 신세대 초임 병사의 종교 성향이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분석. 한국군사회복지학회, 11(2), 108-110.
- 김정은(2013).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위한 개인 역량과 사회적 관계망 연구 : 스트레스 대처모델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중배(2016). 다문화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경험.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 김진선, 김영순(2020).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 상담 연구의 국내 동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소, 38(3) 159-160.
- 김희은, 이미현, 김인규(2014). 국내 대학생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및 연구 동향. 한국상담학회, 15(4), 1444.
- 남연희, 노준, 김영삼(2018). 육군 병사들의 가족 건강성과 자기효능감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군사회복지학회, 11(1), 158-160.
- 박경애, 백지은(2017).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 29(4), 898-890.
- 박상혁(2020). 다문화 병사의 복무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 근거이론방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상희(2012). 군 장병들의 개인 전투 능력 수준이 자아존중감 및 군 생활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 군 초급 간부 및 병사들을 대상으로.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진아(2018). 병사가 지각하는 군 생활 적응 행동과 부적응 행동 : CQR-M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

육치료학회, 1(1), 60-62.

성규선(2014). 부모 양육 태도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통제력과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선현주(2015). 군 생활 스트레스와 상담 욕구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명호(2017). 한국군 장병의 문화적 역량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연미선(2018). 병사의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리더십의 조절효과.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영섭, 김영순, 왕금미(2018). 이야기 치료의 국제적 연구. 문학치료연구, 48(0), 47-52.

오은경, 최미, 최한나(2016). 국내 다문화 상담 연구 동향. 한국상담학회, 17(5), 227-229.

유중원(2018). 군 입대 청소년의 병영문화 인식이 부대 적응, 병영생활 만족도, 진로신념에 미치는 영향. 순복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도연(2010). 공군 병사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대식(2013). 육군 병사의 군 생활 스트레스, 자살 생각, 사회적 지지와 군 생활 적응의 관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용일(2013). 부모와의 대상 관계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이윤희(2014). 군인 청소년의 군 생활 적응과 적응 유연성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1(19), 128-130.

이종협(2018). 일반긴장과 자기통제가 군 장병의 부대 적응에 미치는 영향 : 부정감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주원(2020). 해병대 병사가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대인관계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혜주(2019).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 Double ABC 모델 적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혜주(2018). 사회지지체계이론에 근거한 병사의 구 생활 적응력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34(3), 214-218.

임동조(2017). 병사의 군 적응 및 부적응 관련 국내연구 동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경숙(2008). 신세대병사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용언, 장재원, 김도희(2019). 빅데이터를 통한 군 생활 현황분석과 신세대병사의 군 생활 적응 증진 방안.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35(2), 118-121.

장용언(2017). 군 장병의 군 생활 적응을 위한 군 사회복지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10), 275-277.

장정기(2014). 군 입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 경험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지경(2018). 육군 병사들의 커플 관계에 관한 연구 : 군 생활 스트레스, 커플 관계 탄력성, 그리고

- 군 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6(2), 48-49.
- 정영제(2013). 가정·학교폭력 피해 경험 유무에 따른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대인관계 능력, 자아 탄력성의 영향 구조 분석. 선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은영(2019).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또래 애착에 의한 공동체 의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미경, 고기숙(2009). 군 병사들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자살 기도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0(4), 454-456.
- 정원철, 박영주(2011). 병사의 군 부적응 및 적응력 향상 관련 국내연구 동향의 개관. 한국청소년학회, 18(1), 49-71.
- 정봉기(2016). 병사들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예지(2014). 청소년 학교 부적응 평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동택(2017). 군 장병의 학교폭력 경험이 부대 적응과 군대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 박사학위논문
- 진은실, 임영식(2015). 병사의 군 적응 프로그램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한국청소년학회, 22(6), 33-56.
- 최경순(2014). 후기 청소년의 자율성 욕구, 군 조직 통제 정서, 우울감, 스트레스가 병영 이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세일(2013). 영화치료 프로그램이 군 복무 부적응병사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란(2009).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 연구. 우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경운(2015). 동성애자들의 병영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방부 (2019a). 국방통계연보.
- (2019b). 국방부 병영정책과. 부적응병사 관리 향상방안.
- (2019c).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신세대병사의 특성 분석.
- 서울경제(2020). “국방부, 장병 심리상담 전문 상담관 늘린다.”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W0JZPKA>
- 조선일보(2019). “군생활 못하겠다...신청만 하면 복무부적합 전역.”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http://me2.do/xsv2gSA4>
- MBC(2011). “병영혁신 어떻게” 토론.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http://me2.do/xT7oQfXo>

Abstract

An analysis of trends in domestic research on soldiers' adaptation to military life

Sujin Yun ·Yonugsoon Kim(Inha University)

This study targets a total of 132 doctoral dissertations and articles conducted over 10 years from 2010 to 2020 related to soldiers' adaptation to military life, by identifying basic information,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contents. We tried to examine the flow and trend of the research. Understanding the trend of research on the adaptation to the military life of soldiers will contribute to determining the content and direction of group art therapy using masterpieces for soldiers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he publication year, less than 10 publications were published from 2010 to 2012, then gradually increased from 2013 to 2017, and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gradually after 2018. Most of the publishers were identified as the Dept. of Social Welfare. Second, most of the subjects of study were concentrated in the army(87%). In particular, studies on general soldiers(92%) were dominated, and studies on maladapted soldiers(8%) were weak.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se were carried out by the method of program execution. In addition, the sample size of the study subjects was the largest in 201~500. Third, most of the data collection methods used questionnaire surveys(90%), and quantitative studies accounted for a large number(91%) of data analysis methods.

Fourth,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he most research(78.5%) conduct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and relevance. Main key words were stress, social support, self-esteem, family health,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elf-elasticity in that order,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udies(42%) were most frequently classified by content. Group counseling programs were the most classified by program, with 12 sessions operating sessions, once a week operating intervals, and 90 and 60 minutes operating hou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problems and directions of development for improving soldiers' adaptation to military life are suggested, and additionally, the field of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forces is suggested.

[Keywords] Soldiers, military life adaptation, Research methods,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